

2016년도 국제교류 1차 공모사업 분야별 심의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분야1 • 시각예술분야2 • 연극분야3 • 무용분야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분야6 • 전통예술분야7 • 국제교류통합9
--	---

문학분야

- 일시 : 2016. 1. 21(목), 14:00~16:00
-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2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윤진, 김종욱, 이송원, 이태수, 장미경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문학분야 제1차 국제교류 지원심의위원회는 ‘국제예술교류 지원(4건)’,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1건)’,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19건)’ 등 총 3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3개 유형사업의 총 지원신청건수는 24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118,030,000원이었다.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은 지원신청 금액에서 제외됨)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 및 위원들 간의 전체적인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보내준 24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집행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지원 필요성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지원결정 여부를 논의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자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국제예술교류지원>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교류의 질적 수준이 높아야 하고 국제적 협력시스템이 확고해야 한다. 국제적 위상 및 효과의 지속가능성, 향후 기대되는 성과 등을 가늠할 때 본 지원사업의 지향점과 가장 부합되고 사업계획이 충실한 사업들을 선정하였다. 향후 사업추진 성과의 홍보와 국내 환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공공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개인의 사회적 공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

고 해외레지던스 참가는 현지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업 목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젊은 작가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기획형)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신청자들 대부분이 우수하였지만 참가 대상 레지던스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충족, 현지 언어에 능숙한 원활한 의사소통능력, 적극적인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들을 선정하였다. 새로운 예술정신을 전파하고 흡수할 수 있는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고 기획 내용에서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신청자가 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그리고 해외레지던스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여 참가대상 프로그램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기를 바란다.

문학분야 심의위원 일동

시각예술분야

- 일시 : 2016. 1. 21(목), 10:00~15:00
-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고원석, 김찬동, 변종필, 양정무, 정 현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분야 제1차 국제교류 지원심의위원회는 ‘국제예술교류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등 총 3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3개 유형사업의 총 지원신청건수는 143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2,087,780,775원이었다.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은 지원신청 금액에서 제외됨)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143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시각예술분야는 심의대상이 많았던 것에 비해 선정 건수가 적은 상황이라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다. 지원 신청된 사업들 중 다수가 도전적이거나 참신한 기획 의도가 결여되었고 의욕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따라서 기획의도가 분명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추면서 수월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들을 주로 선정했다. 단순 반복적인 연례사업이나 동호인 중심의 사업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으며 다른 지원기관과의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교류 협력의 의미를 판단하고 연구 및 준비의 정도가 우수한 것들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긴 시간에 걸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심의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응모하는 작가들의 연령대나 작업의 특징, 대상지역과 기관에 있어서 다양성과 다변성이 보였다는 것이다. 레지던스기관의 영향력과 프로그램 내용의 파급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기관과 작가간의 협력관계 등을 감안하였다. 다만 체류 기간이 너무 짧거나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예년에 비해 신청자의 수가 줄었고 전체적인 수준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기획형>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기획형)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의 경우 베타니엔 스튜디오는 경쟁률이 높았으나 가스웍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서 사업 홍보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리라 판단되었다. 새로운 작가들 보다 이미 레지던스를 다수 경험한 작가들의 지원이 많았으며, 그들이 전반적으로 더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현지에서 원활한 작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소통 역량이나 작품 세계의 깊이 등을 주로 고려했으며 대상 기관의 최종 결정을 위해 다양한 성향의 작가들을 복수로 선정했다.

시각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

연극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6. 1. 25(월), 10:00~12:00 ○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박계배, 백로라, 안호상, 이병훈, 정현욱
<p>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p> <p>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연극분야 제1차 국제교류 지원심의위원회는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Arko-Pams 협력지원’ 등 총 4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4개 유형사업의 총 지원신청건수는 46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1,645,900,200원이었다.</p>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46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들의 사전검토와 심의회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검토하고, 무기명으로 지원 대상을 추천하여 총 17팀을 선정대상 후보로 결정하였으며, 다시 심층심의를 거쳐 이들 중에서 최종 후보 단체를 포함하여 총 11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지원대상 단체(개인)의 선정 기준으로는 지원단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주최 및 주관단체의 국제적 영향력, 사업내용과 행사 장소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아울러 국내 및 해외 예술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주요한 선정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제한된 지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쉽게 탈락한 공연단체(개인)도 적지 않았다. 또한 선정 단체들에게도, 지원서에 신청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어 안타까움이 크다. 그럼에도 이들 공연단체들이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갖게 되길 기대해 본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대상은 중기적인 계획과 접근의 가능성 여부, 해외 파트너의 적합성과 신뢰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그리고 신청사업의 주최 및 주관단체의 국제적 영향력 등을 주요한 선정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가능한 한 많은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해외 파트너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신청단체가 많았다. 따라서 아쉽지만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1개 단체만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은 예술인의 해외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 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심의과정에서는 특히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참가기간, 프로그램 참가의 타당성, 파급효과, 국제적 네트워크의 성과에 대한 예술현장 공유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2개 중 1개 단체(개인)를 선정하였다.

향후에는 예술가들이 본인의 역량을 키우고 국제적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더 많은 신청자들이 있기를 기대한다.

<Arko-Pams 협력지원>

ARKO-PAMS협력지원의 경우, 해외 초청의 적합성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공연단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외 파트너의 적합성과 신뢰도, 사업주최 및 주관단체의 국제적 영향력, 초청조건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주요한 선정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지원신청한 3단체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극분야 심의위원 일동

무용분야

- 일시 : 2016. 1. 23(토), 15:00~17:00
-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이경, 남수정, 신은경, 양성옥, 조성희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무용분야 제1차 국제교류 지원심의위원회는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Arko-Pams 협력지원’ 등 총 4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4개 유형사업의 총 지원신청건수는 34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812,238,900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34건의 지원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분야별 심의안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무용분야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사업은 총 29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9건을 선정하였다. 우선 참신성에 기반을 두고 국가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작품을 선별하고자 하였으며, 작품의 주제와 예술성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또한 향후 발전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신진 안무가(단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또한 무용 장르내 세부 장르별 배분을 고려하였으며 신청된 사업이 실현 가능성

이 있는지와 그간 해외 활동 경험 이력을 참조하였다. 뿐만아니라 본 심의에서는 단순 해외 공연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무용 담론을 다같이 모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와 일회성 참가에 의미를 두는 사업은 지원선정에서 우선 제외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한국의 무용단체(개인)가 한국예술에 대한 국위선양과 본인들의 창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무용분야 '국제교류 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은 총 1건이 접수 되었으며, 배정 예산이 있음에도 차기에 더 좋은 단체들이 지원하기를 바라며 해당 없음으로 합의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무용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1차' 사업은 총 2건 신청되었으며, 2건 모두를 선정하였다. 본 사업의 기본 취지는 신진 안무가들이 본인들의 창작 능력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것이라 생각하며, 금번에 지원한 무용수 모두 미래가 밝은 예술가들로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다.

<Arko-Pams 협력지원>

무용분야 'Arko-Pams-1차' 사업은 총 2건이 신청되었으며, 2건 모두를 선정하였다. 본 사업에 신청한 단체들은 서울아트마켓 기간 중, Pams-Choice로 선정되어 해외 공신력 있는 축제에 초청을 받은 작품으로 모두에게 한국 무용을 세계에 알릴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무용분야 심의위원 일동

음악분야

- 일시 : 2016. 1. 22(금), 14:00~16:00
-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리딩룸1
- 심의위원(가나다순) : 박재성, 이만방, 임평용, 장기범, 정태봉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음악분야 제1차 국제교류 지원심의위원회는 '국제예술교류 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Arko-Pams 협력지원' 등 총 3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3개 유형사업의 총 지원신청건수는 44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1,732,659,000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44건의 지원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가배정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음악 분야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사업에는 총 40건이 신청되었으며,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심의하였다. 심의위원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채점하되, 특히 사업별 계획, 집행, 성과 단계별 과정을 참조하여 심의하되, 수행역량과 사업의 우수성, 기여도와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한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 및 발전을 꾀하는 단체를 배려하여 1차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음악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1차' 사업에는 총 1건이 신청되었다. 신청 예술가의 사업수행능력, 활동이력 등을 검토하였고, 발전 가능성 및 레지던스 기관의 공신력, 프로그램의 참신성을 고려하여 1차 심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rko-Pams 협력지원>

음악분야 'ARKO-PAMS협력지원-1차' 사업에는 총 3건이 신청되었다.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신청단체의 발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3건 모두 1차 심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음악분야 심의위원 일동

전통분야

- 일시 : 2016. 1. 22(금), 10:00~12:00
-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승국, 유은선, 임장혁, 전지영, 조원행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6년도 문예기금 국제교류 1차 공모 전통예술분야 지원심의위원회는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 'ARKO-PAMS 협력지원' 등 총 5개 유형의 사업에 대해 1차로 심의하였다. 5개 유형사업의 총 지원신청 건수는 55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1,878백만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1차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

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1차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1차 지원대상과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전통예술분야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사업에는 총 45건이 신청되었으며,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심의하였다. 신청 사업 대부분이 전통적 성격에 충실하다기보다 다변화된 프로그램, 퓨전·하이브리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경우가 많았으며, 음악·무용 뿐 아니라 전통무예·공예 관련 신청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외 교민 대상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되도록 배제하였으며, 신청 단체/예술가의 예술적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장르 배분을 고려하여 1차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전통예술분야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사업에는 총 1건 신청되었다. 신청자의 활동배경, 사업내용, 향후 파급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지원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전통예술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1차' 사업에는 총 1건이 신청되었다. 신청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활동이력 등을 검토하였고,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관의 공신력과 프로그램 참가 후 기대효과가 높아 1차 심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rko-Pams 협력지원>

전통예술분야 'ARKO-PAMS협력지원-1차' 사업에는 총 1건이 신청되었다. 사업내용은 다소 평범하지만 신청단체의 사업수행능력, 활동이력, 향후 활동 기대성과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1차 심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1차>

전통예술분야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1차' 사업에는 총 7건이 신청되었고, 프로그램 참여 적격성, 성공적인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 사업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를 기준으로 심의하였다. 전통에 충실한 단체부터 K-pop 지향의 단체까지 신청단체 및 개인의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었다. 이번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7개 신청단체 개인 중 향후 성장·발전가능성, 사업수행능력과 활동이력, 방송사와의 협업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가장 적합하고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1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전통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

국제교류 통합심의

- 일시 : 2016. 1. 27(수), 10:00~12:00
-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 심의위원 : 김윤진(문학), 변종필(시각예술), 정현욱(연극), 김이경(무용), 장기범(음악), 유은선(전통예술), 문성기(국제교류)

예술위 국제교류분야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단체들의 우수 해외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교류 통합심의는 지원금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규모나 의미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금 수준이 비슷한 것은 추후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의 대표성, 수혜단체의 만족도, 사업효과 측면에서 철저한 평가를 통해 면밀히 재검토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해외 현지 교민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은 현지 단체에 대한 사전검증 및 사업단계에서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거 현지 교민단체가 한국문화예술인을 초청하여 현지 영리활동에 활용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던바, 현지에서의 사업효과 및 수행과정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교민대상사업이라든지, 교민단체가 주관하는 유사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사업 선정 시 작품성이나 상품성이 높은 사업의 파급효과와 신진예술인의 해외교류기회 제공은 상충될 가능성이 높은 검토요소입니다. 두 가지 선정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없어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제교류 통합심의를 마무리하며,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국제교류 통합심의를위원 일동